

# 설계 변경 회의록

**설계·감리자** : 약수동, 황학동 민원부스에 대해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 그에 대한 디자인과 현장에서 돌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번 공개회의에서 결정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약수동 민원부스는 구조 프레임을 두껍게 두고 사인과 등박스 구조를 일치시켜 민원인을 프라이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물 설계되었는데 민원테이블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답답한 느낌과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여 디자인 변경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투시도는 기존 설계된 부스 디자인 설치할 경우를 나타낸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입구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상담실과 민원부스 배치된 이미지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상담실에 민원부스를 보았을 때 이미지이고, 세 번째 이미지는 끝에서 상담부스를 보았을 때의 공간 이미지입니다

기존 디자인 이미지는 포스트가 이용에 거릴적거리고 시야에 답답한 느낌을 준다고 하여 포스트를 없애고 천장에 등박스만 달아서 공간에 영역성을 주었고, 뒤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민원테이블에서 민원이 화장실이 가는 것이 노출되고, 화장실 가는 입장에서 민원테이블이 보여서 문제가 되고 좁은 통행로에서 또 하나의 가벽을 준다고 해서 기존 등박스에서 뒤쪽 포스트는 없애고 앞 쪽은 에칭글라스를 설치하여 민원테이블에서 시야를 가려지게 해서 영역성을 줄 수 있고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 디자인이 최선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 디자인에 대해 동사무소, 보건소의 의견을 듣고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의할 내용은 약수동 옥상에 설치될 목공부스입니다. 처음에는 보건소와 약수동에서 시범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목공작업 교육 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견적을 받았을 때 25,000,000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추가공사비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다보니 현시점에서 목공부스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000,000원이라고 적어 냈지만 실제로 10,000,000원 이상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약수동현장소장과 목공부스 제작업체 제작금액을 절약해서 만든다고 하여도 품질이 설계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과 운영계획이 확보되면 추후에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황학동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원대 위치 조절과 카페 테이블 위치 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부족하므로 민원대 전체를 앞으로 700mm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학동은 아직까지 케이블 설치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사항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겠으나, 민원대가 앞으로 이동할 경우 민원

인 앉는 자리가 매우 좁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황학동 1층 카페테이블을 2층으로 이동해서 1층 사무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자 의견이 있어서 그에 대한 공간 구역이 어떻게 변경되는 배치도를 그려보았는데, 하지만 카페 테이블 이동은 민원대 이동과는 달리 배관공사, 철거 등의 문제로 간단한 보수 수준을 넘어 새로운 공사를 해야하므로 공사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건강팀장 :** 황학동 민원부스도 약수동 동일한가요?

**설계·감리자 :** 네

**자치행정팀장 :** 없앨 수는 없나요?

**설계·감리자 :** 사인이나 조명이 박스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 별도로 조명과 사인이 민원대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황학동도 약수동과 동일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 당 자 :** 약수동에서는 새로운 설계에 대해 의견을 어떤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동 행정민원팀장 :** 에칭그라스가 설치될 경우 파손 등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설계·감리자 :** 유리 모서리에 스틸로 심을 심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수동 행정민원팀장 :** 유리를 전체로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만 설치하면 안되나요?  
전체에 설치하다 보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설계·감리자 :** 처음 의도했던 설계대로 앉아 있는 민원인에게 영역성을 주고 화장실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했습니다

**황학동 행정민원팀장 :** 동사무소의 민원은 다른 은행이나 기관은 비해서 짧고, 길어야 1분을 넘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 현재의 기능 시스템으로 동사무소를 운영하다면 황학동 주민센터 개보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주민들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행정을 하고자 주민센터

를 바꾸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 설계도면을 보면 뒤 쪽이 넓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좁습니다. 기존 설계랑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크릴이나 유리로 막는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디자인 목적은 공간에 대해서 개인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 것인데, 약수동의 경우 원래 민원대가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존 책상을 이용하다 보니 사무공간이 앞으로 바람에 화장실간의 간격이 좁아져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본래 설계안으로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텐데....

뒀에 유리 또는 아크릴 설치하는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면 쇼파를 높이를 조절해서 안락하게 만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수동 행정민원팀장 :** 저희 입장도 좋습니다. 반투명일지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도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 공간을 중간중간 막으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감리자 :** 그림 등박스는 유지한 채 쇼파 등받이만 조절해서 디자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림 이 안에 대해서 동사무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수동 행정민원팀장 :** 괜찮습니다.

**설계·감리자 :** 그림 가림막은 없애고, 쇼파 디자인 잡아서 문제를 잡겠습니다

**보건소장 :** 쇼파 디자인과 때를 따지 않는 칼라를 선택하고 시야도 문제 안 생기고 공간은 분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감리자 :** 위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그림 약수동도 괜찮고 황학동은 어떠습니까?

**황학동 행정민원팀장 :** 황학동은 기둥과 굴곡형 민원대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서에는 좌석배치가 되고 있지만 제가 실측을 해봤는데 겨우 책상이나 의자들이 배치는 되지만 여유 공간이 없어 사무실내에 공간이 없어 주민들을 위한 쇼파 설치도 어려우니 동장님과 주민들은 일자형 민원대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카페 이전도 얘기하시는데 지금에서 옮기가 어렵다면 칸막이 설치하여 민원인이 안 보이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요철형 민원대입니다

**보건소장 :** 이 디자인을 설계할 결정하기까지는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했고, 최종적으로

이 설계를 완성하고도 말이 많아서 행정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약수동은 80%, 황학동은 60% 공정율이 나가기 때문에 다시 일자형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둥은 이미 건축당시부터 잘못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사무공간으로 모시고 가지 말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거기서 얘기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황학동 행정민원팀장 :** 주민들은 사무실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신당동사무소에는 센터에 쇼파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직원들 속으로 자주 들어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건소장 :** 앞으로는 일부 특정인들만 방문하는 주민센터가 아니고 많은 일반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간을 설계한 것이며, 자치위원님들은 3층에 동장실도 있고...

**황학동 행정민원팀장 :** 그런 것이 아니고...요철형 민원대와 부스로 인하여 뒤 사무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 설계사무실에서는 사무공간에 대해서 황학동과 검토하시지 않았나요?

**설계·감리자 :** 책상사이즈와 직원 현황에 대해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자리를 배치하고 그 기준으로 통행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책상과 설계도에 그려진 책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어제 현장에서 얘기 하는 것은 앞으로 500~600 정도 옮기면 뒤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런데 민원인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습니다

**보건소장 :** 그럼 쇼파는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나요?

**설계·감리자 :**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 그럼 기둥을 이용해 쇼파 등받이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설계·감리자 :** 가능합니다.

**황학동 행정민원팀장 :** 기둥 때문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직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 황학동은 그다지 민원인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설계를 해서 공사가 완료했는데 지금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설계에서는 앞쪽으로 700정도 당겨서 사무공간을 확보하시고 대신에 앞쪽 공간은 좁지 않게끔 기둥을 충분히 활용하여 설계하도록 하여 주세요

황학동은 천장이 낮으므로 등박스를 구지 설치할 필요 없이 기둥을 활용해 민원사인을 붙이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구지 조명이 문제가 된다면 개인 조명을 설치하다든지 해주세요. 초대할 기둥이 없는 형태로 설계해주세요. 사인에 대한 디자인은 했나요

**설계·감리자 :** 네에

**건강도시과장 :** 황학동의 부스를 제거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지?

**설계·감리자 :** 부스를 제거하면 천장과 바닥은 보수가 들어가야 하면 쇼파와 사인은 기존 내역에 잡혀 있으므로 하면 됩니다

**건강도시과장 :**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에게도 안내하여 협조를 구하여 설득해주세요

**보건소장 :** 공간 자체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할 수는 있으나 기존 설계를 무시한 채 처음부터 다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스 포스트는 없애고 카페 공간은 사용하다가 사무공간과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완하도록 하시죠!

**건강도시과장 :** 현장에 가보니 동사무소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아무리 얘기해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인제 사용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시죠

이 시스템이 전국에서 처음하는 사업인 관계로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동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보고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시죠

**보건소장 :** 실험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좀 해주세요!